

《黃帝內經素問》卷之二 異法方宜論篇 第十二 中

黃帝問曰 醫之治病也 一病而治各不同 皆愈 何也

岐伯 對曰地勢使然也 故 東方之域 天地之所始生也 魚鹽之地 海濱傍水 其民

食魚而嗜鹹 皆安其處 美其食 魚者使人熱中 鹽者勝血 故 其民 皆黑色疎理 其病

皆爲(癰瘍) 其治宜(砭石) 故 砭石者 亦從東方來

황제께서 물어 말씀하시기를 의사가 병을 다스리는 것이 한 가지로 병이 들었는데 치법(治法)이 각각 같지 않거늘 다 낫는 것은 어째서입니까? 기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지세(地勢)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. 그러므로 동쪽 지역은 천지(天地)가 기운을 시생(始生)하는 곳으로 물고기와 소금이 많이 나는 곳이며 바다에 인접하고 물이 옆에 있으니, 그 백성들이 주로 물고기를 먹고 짠 것을 즐기며, 모두 그 거처를 편안히 여겨 그 음식을 달게 먹으니, 물고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몸속을 뜨겁게 하고 소금은 혈(血)을 이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백성이 모두 안색이 검으면서 주리(瘡理)가 성기고 그 병이 모두 옹양(癰瘍)으로 나타나니, 그 치료는 펌석(砭石)이 마땅하므로 그러므로 펌석(砭石)은 또한 동방(東方)으로부터 온 것입니다.

西方者 金玉之域 沙石之處 天地之所收引也 其民 陵居而多風 水土剛強 其民

不衣而褐薦 其民 華食而脂肥 故 邪不能傷其形體 其病(生於內) 其治宜(毒藥)

故 毒藥者 亦從西方來

서방(西方)은 쇠와 옥(玉)이 많이 나는 곳이며 모래와 돌이 많은 곳으로 천지(天地)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곳입니다. 그 백성들이 높은 언덕에 거처하여 바람이 많고 물과 흙이 거칠고 역세어서 그 백성들이 무명이나 비단옷을 입지 않고 거친 삼베나 거적을 쓰며 그 백성들이 고기와 같이 열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기름지고 살이 찌니, 그러므로 사기(邪氣)가 형체를 손상(損傷)시키지 못하고 병이 안에서 생기니, 그 치료는 독약(毒藥)이 마땅하므로, 그러므로 독약(毒藥)은 또한 서방(西方)으로부터 온 것입니다.

北方者 天地所閉藏之域也 其地高 陵居 風寒冰冽 其民 樂野處而乳食 (藏寒生滿病)

其治宜(灸焫) 故 灸焫者 亦從北方來

북방(北方)은 천지(天地)가 기운을 닫아 갈무리하는 지역으로 그 땅이 높아 구릉에 걸쳐하여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추워 땅이 꽁꽁 어니, 그 백성들이 즐겨 들에 거처하면서 짐승의 젖을 먹어서 뱃속에 한기(寒氣)가 머물러 창만(脹滿)이 생기니, 그 치료는 구설(灸焫)이 마땅하므로 그러므로 구설(灸焫)은 또한 북방(北方)으로부터 온 것입니다.

南方者 天地所長養 陽之所盛處也 其地下 水土弱 霧露之所聚也 其民 嗜酸而食附

故 其民 皆緻理而赤色 其病(攣痺) 其治宜(微鍼) 故 九鍼者 亦從南方來

남방(南方)은 천지(天地)가 기운을 키우고 기르며 양기(陽氣)가 성(盛)한 바의 곳으로 그 땅이 낮고 물과 흙이 약(弱)하며 안개와 이슬이 모이는 곳이니, 그 백성들이 시큼한 것을 좋아하여 삭힌 것을 먹으니, 그러므로 그 백성들이 모두 주리(腠理)가 치밀하면서 안색이 붉고 그 병이 근육(筋肉)이 뒤틀리면서 저리니, 그 치료는 미침(微鍼)이 마땅하므로 그러므로 구침(九鍼)은 또한 남방(南方)으로부터 온 것입니다.

中央者 其地平以濕 天地所以生萬物也衆 其民 食雜而不勞 故 其病多(痿厥寒熱)

其治宜 (導引按蹻) 故 導引按蹻者 亦從中央出也.

중앙(中央)은 그 땅이 평평하고 습(濕)하여 천지(天地)가 만물을 생(生)하는 바가 많으니, 그 백성들이 다양한 것을 먹고 일을 많이 하지 않는지라 그러므로 그 병이 위결(痿厥)과 한열(寒熱)이 많으니, 그 다스림은 도인(導引)과 안교(按蹻)가 마땅하므로 그러므로 도인과 안교는 또한 중앙에서 생긴 것입니다.